

## TPP 타결 후 일본의 대응과 대한민국 FTA전략

- 일본정부는 ①TPP 타결에 따라 TPP활용 촉진에 의한 새로운 시장개척, ②TPP를 계기로 한 기술혁신·산업 활성화, ③TPP의 영향에 대한 국민 불안의 불식 등 3가지를 기본방침으로 정하여 국내 대응책을 구체화
- 대외적 대응으로는 TPP 타결을 발판으로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시장개방을 촉구하는 동시에 미국처럼 TPP를 메가 FTA의 시금석으로 자리매김
-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의 TPP참가를 환영하는 대신, 한국으로부터 일본산 자동차 등에 대한 한국의 관세철폐를 받아내고 그동안 한국시장에서의 입지를 회복시키겠다는 전략도 모색하고 있음

### 1. TPP 종합대책

- 일본정부는 TPP 타결 직후 TPP를 일본의 경제재생과 지방창생으로 직결시키기 위해, 앞으로 협정의 서명 및 국회승인을 위한 조정과 병행하여 관련 법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대응으로 조만간 종합적인 TPP 관련 정책대강을 책정기로 함

#### □ 기본방침

#### □ TPP 활용 촉진에 의한 새로운 시장개척

- 모든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TPP를 활용하여 새로운 글로벌 밸류체인(GVC)을 구축토록 촉구
- TPP 타결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지방의 중견·중소기업들에게도 개방된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큰 기회를 제공
- 일본정부는 TPP를 계기로 글로벌한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과 해외로부터 투자와 인력을 유치하여 지역 현장에서 지방창생에 노력하는 인력들을 적극 지원하는 등 TPP 활용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

## □ TPP를 계기로 한 기술혁신·산업 활성화

- TPP의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생산성 향상, 지역산업의 활성화 등을 이룩하고 이를 통하여 경제성장의 기틀을 확고히 함
- TPP에 대한 기대 효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기술의 향상과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간·기업 간 연대를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향상
- 일본정부는 이와 같은 움직임을 가속시키기 위한 조치를 강구

## □ TPP의 영향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불식

- TPP의 영향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불식, 특히 농림수산업 분야의 중요품목에 대해서는 계속 재생산이 가능하도록 강한 농림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

## ② 국내 대응책

- TPP를 활용하기 위해 기본방침에 입각한 국내대응책을 구체화함에 있어서, 이른바 대책비성격의 접근이 아니고 일본의 농업구조를 강화해나기 위한 개혁공정과 시간 축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대응

## □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내 조건 정비, 환경정비

- 일본재흥전략(2015년 개정)에 제시된 관련사항 중 TPP를 계기로 할 수 있는 것은 앞당겨 실시, 특히 3)의 중점시책 항목이 중요

## □ 성장 지향의 와이즈 스펀딩(Wise Spending : 효과적인 수요 진작책)

- TPP에 대한 대응책은 2015년 경제·재정운용방향에 제시된 재정규율을 견지하는 것을 기본으로, 와이즈 스펀딩 방침에 따라 비용/편익을 충분히 감안한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자원의 중점배분을 실시
  - 특히 국내 대응책은 대책비적인 접근이 아니고, 구조개혁 촉진 차원에서 개혁을 촉진 하는 시책 및 성장을 위한 공격형 사업을 중시

### ③ 중점 시책

#### □ 산업의 신진대사 촉진

- 사업재편·사업전환 촉진 기업지배구조 강화, IT경영 촉진
- 해외사업 촉진과 글로벌 니치 톱을 목표로 하는 기업을 지원

#### □ 지역 활성화·지역구조개혁의 실현 등

- 지역자원의 활용·결집·브랜드화
- 수익력 확립

#### □ 국내 밸류체인 연결

- 6차 산업화를 추진하고 축산·낙농업을 성장산업화

#### □ 수출 촉진

- 일본브랜드 추진

#### □ 해외전개 잠재력이 있는 기업 등에 대한 중점 지원

- 해외전개지원체제 강화·해외원스톱창구 확충 강화·ODA 활용

#### □ 쿨 저팬 추진

- 발신·연대·홍보체제 강화

#### □ 투자유치 활성화


- 외국기업의 일본 유치를 위한 5개 사항으로 ①외국어표기, ②무료 WIFI 정비, ③지방공항의 이용편의성 개선, ④외국인 자녀교육 환경정비, ⑤투자 상담체제 정비, 강화 등을 약속

## 2. 대외 대응책

- 일본정부는 TPP 타결을 발판으로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시장개방을 촉구하겠다는 방침
  - FTA교섭에서 일본은 뒤늦은 편이었으나 TPP를 발판으로 메가 FTA가 실현되면 일본기업의 경쟁 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음
- 일본 경제산업성은 TPP타결은 유럽과 중국과 한국과의 통상교섭을 일변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
  - 2국간 FTA로는 많은 나라들을 포함한 기업들의 서플라이체인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지역을 포괄하는 메가 FTA가 통상교섭의 초점이 되고 있음
  - 이에 미국이 EU와도 TTIP(환대서양무역투자협정)교섭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, 일본도 TPP를 메가FTA의 시금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
- 특히 일본이 주목하는 것은 중국의 대응임
  - TPP는 국영기업 개혁, 지적재산권 보호, 투자자유화 등 높은 수준의 규정·제도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 만큼,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이 부딪치고 있는 문제로 다분히 중국을 의식한 내용임

## 3. 對한국 FTA전략

- 11월 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TPP참가문제를 둘러싸고 일본의 협력을 기대한다는 뜻을 표명
- 일본은 표면상 한국의 TPP참가를 환영하기는 하나, 대신 한국으로부터 일본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철폐를 받아내고 그동안 한국시장에서의 입지를 회복시키겠다는 전략도 모색하고 있음
- 한국이 TPP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미국 등 TPP참가 12개국 모두의 승인이 필요함
  - 일본도 TPP에 참가하기 전 미국에 시장개방을 약속했음

- 일본의 TPP담당 교섭관은 참가승인에는 한국이 일본의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 한다는 약속이 필요하다고 지적
  - 한국은 일본산 자동차(8%)와 화학제품에(6.5%) 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
- 이번 TPP협상에서 일본은 TPP로 수산물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으나 김 등 해조류만은 관세를 유지했는데, 이는 김을 생산하는 한국의 TPP참가를 예상하여 관세교섭에서 거래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임
- 한국의 수입차 시장은 확대되고 있으나 일본차는 독일차에 눌려 한국시장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
  - 한국·EU FTA의 발효로 유럽차에 대한 관세가 일부 철폐된 것도 그 요인임
  - 근년 일본과의 자동차부품 무역에서는 한국 측이 흑자
- TPP는 역내에서 어느 정도 생산한 제품은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에 TPP에 참가하면 해외전개를 서두르는 한국 제조업으로서는 혜택을 받기 쉬움
  - 이는 그동안 한국이 체결한 2국간 FTA에는 없는 이점임
  - TPP에 참가하는 멕시코에 현대자동차가 新공장을 건설 중인데 한국은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고 있지 않음
- 일본 언론은 한국 경제계에 TPP에 대한 신중론도 있다고 보도
  -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은 자동차시장은 일본으로부터 무차별공격을 받을지 모른다고 발언 

#### <참고자료>

- 닷케이신문(2015.11.3.)
- TPP종합대책본부, 「TP협정교섭 큰 틀 합의에 입각한 종합적인 정책대응에 관한 기본방침」(2015.10.9.) 및 부속자료(2105.10.16.)